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또다시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7일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또다시 시찰하시였다.

이른새벽 세찬 파도를 헤치시며 방어대들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섬방어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군인가족들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대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방어대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아버지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첫수역식에 참가하였던 방어대장을 보았다고, 장재도방어대 군인들을 보고싶어 다시 왔는데 모두들 건강한 몸으로 잘 있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았시였을 때 품에 안아주시였던 정항명어린이를 다시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정항명어린이의 아버지인 군관 정금철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항명의 첫돌이 어제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병실에 들리시어 빨감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이번 겨울에 춥지 않았는가를 물어주신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군인들이 외진 섬에서도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게 조건보장을 지금보다 더 잘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교양실에 들리시어서는 교양거점답게 잘 꾸리고 정치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구분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약기를 비롯한 군중문화오락기재들을 충분히 마련해주어 섬방어대 군인들이 언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고 량만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는 길에서 방어대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을 보시고 그 관리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장재도를 자신께서는 늘 잊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조국수호의 최전방초소답게 더 잘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감시소현대화정형과 방어대가 타격할 대연평도의 적대상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방어대군인들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수 있게 경사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령해,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지면 호되게 답대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정항명어린이를 보시고 자신의 가까이로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평도교역전은 정전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었다고 하시면서 그날 한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맛을 보여준 방어대군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물보장, 전기보장상태 등을 알아보고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놓고 그 덕을 토포히 보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대연평도를 주의깊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장으로부터 지형지물과 방어대의 령량배치상태, 전투준비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평도서방어부대를 포함한 서해 5개 섬에 증강배치된 적들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확정하시고 정밀타격순차와 질서를 규정해주시였다.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적들이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맞게 방어대의 무장장비를 더욱 원만히 갖추는 문제, 분담된 대상물들에 대한 화력밀도를 높이는 문제, 포사격의 집중성을 높이는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섬방어대의 실정에 맞는 전시군의보장문제와 작전전투방안과 관련한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장재도방

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전투동원준비 실태를 료해하였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돌아보면서 전투진지들이 싸움을 예견하여 튼튼히 다져진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만단의 전투진입태세를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 올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지난해 12월 12일 우리는 판례이상으로 국제적인 투명성을 보장하고 경제도 비교적 온화한 때를 선택하여 정정당당하게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애초부터 우리의 위성발사를 반공화국압살의 계기로 만들어보려고 작정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막무가내로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자주권을 부정해나섰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적대행위는 해를 넘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부득불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2일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기 좋게 단행한 이후에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옹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보다 강한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하고있다.

그것도 성취치 않아 3월 1일부터 무려 60일 동안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지난해와 달리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미 제정략군의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라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하여 지상, 해

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 투입되고 남조선괴뢰들과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여러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며 온갖 적대세력들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가장 로폭적인 군사적대발행위로 된다.

벌어지고있는 험악한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자주권침해행위가 청포한 경제 《제재》수위를 넘어 침략적인 군사공세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조선형 정세와 관련하여 나라의 국방과 안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2월 23일 판문점대교부를 통하여 미제침략군들에게 끝끝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그 순간부터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루는 가장 교활한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조선 《제재》소동을 일으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비열한 음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다.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은 미국땅에 화살 한 축, 돌맹이 한개 던진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풀수 없는 괴мет힌 한을 남기고도 모자라 오늘도 우리를 먹여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책동에 미국에 대한 숭배와 사대애 물젖은 남조선괴뢰들이 같이 춤추고 있는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가 전연군단들과 합대사령부, 유도탄부대들을 싸다니면서 우리의 무슨 《군사적도발》이 예견된다고 선동하면서 《도발원점》에 대한 《처절한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면서 함부로 채치고있다.

원래 이들로 말하면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리명박역도와 함께 북남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역적무리들로서 미국상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변나라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온 겨레와 민족은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르고 헤매비는 군사깡패들이다.

이 괴뢰조선관들에게 뒤질세라 괴뢰당국자들 역시 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전이 하라는데로 핵을 포기하라, 도발을 중지하라하고 떠들면서 로보트처럼 움직이고 영무세처럼 위우고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과 천하의 역적무리인 동족대결광신자들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하고있을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

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는것이 선군조선의 본태이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이겼고 만났을 무릅쓰고 승리의 길을 걸은 지난 력사가 그것을 확증해준다.

이미 우리 전선군진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과 전략로켓군부대들,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더우기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덤벼들고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 치게 될것이다.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버리게 되어있다.

이 땅은 결코 발칸반도가 아니며 이라크나 리비아는 더욱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달리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다.

둘째,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게 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이번에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릴것이다.

우리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먹은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지는것이다.

셋째,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여오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문점조미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하여 내리게 된다.

우리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기 위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상대로 번져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주제 102(2013)년 3월 5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지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전쟁집경에 몰아가고있는 미국이 벌려놓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년례적인 연습》이라는 연막을 치고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포합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연습이 《핵전파방지》라는 명분밑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전쟁각본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새로운 반공화국 《결의》가 조작되고있을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저들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할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

행하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연습에 지난 조선전쟁때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여러 추종 국가무력까지 끌어들이고있다.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양지역으로 옮긴 미국은 유라시아대륙에 상륙할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조선반도를 라고앉을것을 1차적목표로 삼고있으며 심각한 국내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도 제2의 조선전쟁도발에서 찾으려고하고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고 핵무기와 핵시설들이 밀집되어있는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서 위협천만한 불장난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선의와 자제력에 대우모색전쟁연습으로 대담하고 《년례적인》 전쟁연습이 실제로 넘어가고있는 상황에서 외교적해결의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대응만 남았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준엄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릴것이라고 선언한것은 그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주도하고있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내용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새로운 《제재결의》 채택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푸른 신호등을 켜준다면 우리는 다지고 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영원히 끝장내버릴

것이다.

셋째,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된 이 시각 우리는 1950년 미국의 침략전쟁의 이수인노릇을 하여 조선민족에게 천추를 두고 씻을수 없는 원한을 남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또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체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을 문제시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의 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며 조선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만 정의의 수호할수 있다.

미국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활화산처럼 라오르게 될 정의의 불길에 타없이질것은 침략자들과 저주로운 군사분계선본이다.

주제 102(2013)년 3월 7일  
평 양





# 무자비한 정의의 총대로 철천지원수 미제와 총결산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군민대회 진행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군민대회가 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인민군장병들과 각종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지고 다져온 보복의 총대로 전쟁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을 흔적도 없이 족탕처리하고야말 기세드높이 대회장으로 모여왔다.

드넓은 광장은 지난날 변변한 화승대조차 없어 땅굴노의 치욕을 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에게 자주의 신념을 안겨주고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을 강위력한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으로 전변시켜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심을 안고 모여온 10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기 위한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결의를 가다듬고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문경덕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랑독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장병 강보영,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복합공장 지배인 박형렬,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동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화숙,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강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잃어버리고 미제날뛰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기어코 강탈하려고 발광하는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천만군민의 의지와 필승의 선언이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대변인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강조하였다.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공세에 매여달리다 못해 핵전쟁연습까지 벌여놓고 《신제타격》을 떠벌이며 하루강아지범무서운줄 모르고 헤뎀비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강행하다 못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 원수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는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먹여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어리석은 전쟁광대국에 함께 출주는 괴뢰역적패당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적

들은 상대가 누구이고 제물들의 앞길에 어떤 종국적파멸의 운명이 기다리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모시여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이겼고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백두산대국의 본래를 보여줄것이라고 말하였다.

세상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하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제마음대로 날치던 미제와 여기에 동조하던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운명이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천첩만첩의 성세, 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 동지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신성한 조국의 옥토와 푸른 하늘을 철용성같이 지켜 나갈것이라고 말

하였다.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지와 낫을 들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을 쳐부시는 심정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격전장

들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청춘도 생명이 다 바쳐싸운 진화의 영웅들처럼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조국통일대전에 용약 뛰어들어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해 성공시킨 그 단력, 그 배

짙으로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이 땅에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의 력사적인 해로 빛낼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 억세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진군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으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 선군의 기치높이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수심상상 비법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며 선군의 조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공화국을 불의의 자주강국으로 더욱 빛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0년대 중엽 공화국이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컸다.

국상과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선군정치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초도여로의 풍랑길과 백천

한굴이를 들고돌아야 하는 오성산의 칼벼랑길, 위험천만한 최전방고지인 351고지를 비롯하여 장군님께서 길고걸음 신 조국수호의 그 길은 헤아릴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련속이였다.

이에 대해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길고걸음신 애국의 선군천만리가 있어 공화국의 군력은 백방으로 강화되였으며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정의와 부정의, 애국과 매국간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능력을 랑독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제재》소동을 단호히 짓궂은 력사적장거이며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일

대 사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주권수호를 위한 대응조치인 지하핵시험을 결코 《제재》를 운운하던끝에 그것도 성차지 않아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열마전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선언한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은 천만군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멸적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승리의 장쾌한 선언이며 정의에 도전하여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적대세력들에게 절없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멸적의 폭탄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또 한번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선군의 길, 정의와 애국애족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은 앞으로 승리하고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하여 온 나라는 산악같이 일떠섰다.

대변인성명에서도 청명된것처럼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쏘고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정밀한 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신대응방식이다.

불의의 횡포에 정의의 무죄주먹으로 맞서는 선군조선의 기치는 백두산의 기상대로이다.

나라의 복변에 민족의 성산으로 우뚝 솟아 빛나는 백두산.

우리 겨레가 먼 옛날부터 숭상하여온 백두산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조선사람의 넋과 기상을 체현하고있으며 그 아아하게 치솟은 어깨부터는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억센 담력과 기상을 시위하고있다. 일찌기 항일선열들이 백두산에서 민족의 정기를 모아 반일항전의 불길기를 지펴올리고 일제침략자들의 정수리에 불벼락을 내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백두산에서 형성된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에 맞받아나가는 전략을 일관하게 구사하여왔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집

어삼키려고 제국주의괴수인 미국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올 때였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표시하고있을 때 평양에서 울려나온것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결정적인 반공격적으로 적의 무장력을 소탕하자라는 군대와 인민의 힘찬 목소리였다. 조선은 미국의 침공에 전전선에서의 반공격으로 대답하였다.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은 해방되고 원수들은 혼비백산하였다. 미국은 전쟁 전기간 저들에게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키려고 《크리스마스총공세》

으로 뻗던련승하였다.

1990년대초 미국이 《핵개발의혹》설을 퍼뜨리며 수많은 침략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결정으로 몰아갈 때에도 공화국은 준전시상태에 진입하고 핵무기전파방시약에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적대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도 공화국은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힘있게 버티고 《크리스마스총공세》

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위반》이니 뭐니 하고 곁돌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위성발사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이 단호하게 취한 조치는 천지를 뒤흔든 제3차 지하핵시험이였다.

공화국은 자위의 핵되성을 올린 그날 이번의 핵시험이 최대의 자체력을 발휘한 1차적인 대웅조치고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2차, 3차 대웅조치들을 련속 취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기어이 벌여놓았다.

이에 공화국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하며 조선전정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한것은 적대세력의 총에 는 대포로 맞서는 선군조선의 불변의 립장, 초강경자세를 다시금 파시한것이다.

림장해

본사기자 김강철



#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성 명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북침핵전쟁책동이 위협천만 단계에 이르렀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기질과 철의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웅당 우리의 경고에 심사숙고해야 할것이었다.

그러나 대결에 환장하고 전쟁열에 들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대규모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고 더욱 발광하면서 끝끝내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반공화국 추가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불법무도한 횡포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제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제가 입을 찹좌도 가리지 못하고 반공화국 침략행위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이다.

지어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미국이 쥐여준 북

침핵전쟁불통치를 휘두르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걸고 갑히 《도발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런가하면 어리석게도 괴뢰들은 우리의 중대조치에 대해 남조선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무슨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황당한 꾀를 늘어놓으며 우리의 초강경의지를 훼손시켜보려고 주재님께 늘어대고있다.

날로 더욱 무모해지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이러한 포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하여 이미 풍지박산난 북남관계는 이제 더는 수습할수 없는 위형계선을 넘어서고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히 협박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는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들을 천명한다.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파기한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방대한 공공연한 침략행위로서 북남사이의 불가침을 위반하여 남조선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광범적으로 벌리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침략행위로서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우리를 침략하려고 피눈이 되어 달러드는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해결, 불가침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합의들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전쟁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것이라는것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의 구속을 받을일이 없이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

미국은 이미 60여년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핵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이며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비호, 조장하고 북침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온 공범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오래전에 종말을 고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되었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천명한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핵포기》니, 《핵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온 괴뢰패당은 우리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셋째, 북남사이의 판문점연락통로를 폐쇄한다. 동족대결과 적대의식에 환경이 되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과는 더이상 할 말도 없고 오직 물리적침에 의한 결산

만이 남아있다.

동족대결을 생존수단으로 하는자들과 동포애와 인도주의문제를 논한다는것은 송고한 적십자정신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전쟁책동과 신뢰구축, 대결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신뢰》니, 《대화》니 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하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와 즉시 단절한다는것을 통고한다.

우리의 정의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위협이 아니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만장약된 밀적의 의지의 폭발이라는것을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천만군민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위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주제 102(2013)년 3월 8일 평 양

### 한다면 하는것은 선군조선의 본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하는것이 선군조선의 본때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대변인성명이 밝힌것처럼 한다면 하는것은 선군조선의 본때이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자기 식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 밑바탕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 놓여있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킬 강력한 힘도 갖추고있기에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강한 압

력과 《제재》, 군사적위협에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을 굽지않아 걸어왔으며 한다면 하는 선군조선의 본때를 그때마다 남김없이 과시하고 하였다.

2009년 공화국이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했다는 발표가 나갔을 때에도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 추종세력은 불맛은 비뚤지처럼 날뛰면서 인공위성 발사를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강력한 제재》요령을 하며 떠들다 못해 공화국의 위성을 《요격》하겠다고 하면서 조선통해상에 술한 함선들을 띄워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여기에 눈설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가 결심한대로 우주에 조선의 위성을 당당하게 쏘아 올렸다.

한다면 하는 선군조선의 본때는 2010년에 있는 연평도포격전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미국의 사육을 받은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인민군대의 거둬들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전쟁발단은 포사격연습을 벌려놓고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에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공화국의 군대는 이미 경고한대로 도발의 본거지인 연평도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었으며 인내력을 나약성으로 오만하고 멋있던 날뛰던 원수들에게 백두산강군의 총대맛, 진짜전쟁맛이 무엇인지를 독특히 보여 주었다.

지난해 12월에 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올해 2월에 있는 제3차 지하핵시험은 말 그대로 한다면 하는 선군조선의 본때를 만천하에 과시

한 일대 장거로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모두막아보려고 발악하였지만 공화국의 위성은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한편 공화국은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마구 침해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로서 이미 선포한대로 높은 수준의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나는 려사를 망각하고 이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조치들과 거기에 담겨진 공화국의 강령적 경고를 무시한 대항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지난해와 달리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미군의 핵동력추진항공모함타격전과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도 대량 투입된다. 이는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위협한 핵전쟁수동으로 된다.

미국의 반공화국자주권침해행위가 경제 《제재》수위를 넘어 침략적인 군사공세로 이어지고있고 그속에서 핵타격수단들까지 대량 투입되게 되는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위협하는 엄중

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로 공화국을 함시적으로 위협해왔

다. 그 핵위협은 도수는 날로 더욱 강화되어 오늘에 와서는 수많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북침전쟁책동의 불기를 몰아오고있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침해하려 하는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이것을 수에 방관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서는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

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원수들이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 이것은 공화국 군대와

### 핵위협에는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의 조선은 핵보유국이다.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이미

부터 지구상 그 어느곳에 있던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수 있는 신뢰성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이번에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선언한것처럼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펼쳐나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라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 지부장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 지부장 김영일이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괴뢰군의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의 20여만명과 미제침략군의 1만여명을 투입하여 광범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최신식무기들을 끌어들이 괴뢰호전광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벌려놓은것은 공화국을 그 어느때든지 삼켜버려는 승냥이의 본성을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성명 발표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규탄

했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지금 조선반도에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불꽃이 될수 있는 극도의 위기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합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만일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이번 군사연습의 강행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의 천만군민과 함께 쌓이고 쌓인 원한을 총폭발시켜 미제침략자들의 본거지를 단호히 짓몽개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하여 2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기어

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불장난수동이 라고 단죄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

제도이탈란드동포협력회 인터넷홈페이지 《코리아뉴스》가 2월 26일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끊임없는 군사연습수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그 어느때보다 핵전쟁위험이 커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북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신성한 공화국의 영토와 명해를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일당백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산악같이 일떠서 즉시적인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게 될것이다.

시합을 트집잡으며 더욱 강력한 유엔 《제재》를 제치다 못해 남조선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같은 남조선의 현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걸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무적침습의 기상이 이 땅, 이 하늘을 무섭게 뒤흔들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는것이 선군조선의 본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포병화력타격훈련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 대기를 헤가르며 날오는 복수의 불줄기들, 순식간에 불바다로 화하는 《적진》, 강철포신이 달아오르도록 포탄을 쏘고 또 쏘는 조선인민군 포병들...

이날의 포병화력타격훈련에서 응용한 포병들은 침략자들의 그 어떤 사소한 형태의 전쟁연습수동과 도발행위도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결사의 의지를 가슴후련히 시위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조선인민군 포병화력타격훈련은 준엄높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탄탄하게 침해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지금 온 나라가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

한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 집요하고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책들에 매달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활화산처럼 일떠

—준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우리 500만 청년들은 500만 개의 총폭탄이 되어 침략의 아성을 짓몽개버릴것이다.

—우리앞에는 오직 총결산, 장쾌한 승리만이 남아 있다. 우리 로병들에게도 총

을 달라!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자기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침략전쟁열에 들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밀적의 기상 넘친다.



# 조선의 본노하늘에 닿았다

## 호전광들에게 진짜전쟁맛을 톡톡히...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천명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접하고 열적의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접하고 격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최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수표

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여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비행기들도 출격태세를 갖추고 땅크들도 공격출발선에 서있으며 각종 포, 미사일들도 만장약되어 불을 내뿜기 직전 상태이다.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들도 발사단추만 누르면 침략의 아성을 불바다에 잠글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침략의 본지를 짓궂게 놓을 열적의 의지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는 하

수 없는 괴맷힌 한탄 새겨여왔다.

대대로 한강도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돌로 가른 장본인도 미국이며 평화롭던 이 강산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와 농촌을 재가루로

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달려드는 호전광, 침략자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화전쟁맛이 어떤것인지 몸서리치게 느끼게 할 것이다.

평양탄광기계공장 노동자 김철진은 분격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의 참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적대세력과 최후결산을 할 때가 왔다. 《방어적》이요, 《년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쓴 합동군사연습의 《선제타격》과제는 우리 공화국의 과제는 우리 공화국의 과

고 함부로 날뛰는 호전광들에게 선군조선의 본체가 어떤것인가를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경망되고 소용화된 핵탄을 비롯하여 모든 공격수단과 방위수단들이 다 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침략자들은 다시는 하늘을 쳐다볼수 없게 처참한 피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최대성



공화국이 단행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탄탄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술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위협해나서고 있다.

도대체 미국이 무엇이기에 민족의 신성한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해를 넘기며 더 악랄하게 추추하면서 북침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는가 하는지이다.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은 미국땅에 화살 한촉, 들맹이 한개 던진적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가슴에 천추만대들 두고 풀

수 없는 괴맷힌 한탄 새겨여왔다.

대대로 한강도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돌로 가른 장본인도 미국이며 평화롭던 이 강산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와 농촌을 재가루로

국이다.

그런 미국이 오늘도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기 위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침략적인 군사공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상 선군조선의 선택도 명백해졌다.

인원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쏘기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비참한 과멸의 운명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해하려고 횡포한 경제《제재》수위를 넘겨 침략적인 군사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포악무도한 원수들에게 대한 치욕은 적개심과 보복의 일념으로 세차게 끓고 있다.

적대세력과의 판거리 전면대결전이 벌어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어디겠는가. 그것은 조국수호의 자리이고 원수격멸의 화선이다.

이 손으로 악의 제국, 침략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안아오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면대결전에 나섰다.

미국놈들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고 고난과 시련도 헤쳐야 했는가.

이 나라의 허리를 가로질러놓고 6.25의 재난을 몰아온 미국, 근 70년세월이나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하고 공화국의 평화적건설과 발전의 길을 가로막아온 불구대천의 원수.

이제는 우리의 인내도 한계점을 넘어섰다. 우리를 암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협한 상태로 번져지고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

칼에는 장검으로, 총에는 대포로, 핵에는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우리 청년들은 500만의 총포탄이 되어 침략자들의 아성을 짓궂게 버리고 조국통일의 통장훈을 부르고야말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자기의 청춘을 바친 리수복영웅처럼 조국수호의 길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 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원 한명철

### 조선의 선택

호되게 징벌해야 한다

자기 식의 《기준》에 맞고 그와 어긋날 때는 칼을 빼드는 미국을 보니 프로크루스테스가 떠오른다.

고대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지나가는 길손들을 악착한 방법으로 해치는 악한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은 프로크루스테스 즉 잡아늘이는 놈, 쇠질대도적이었다.

이놈은 자기 집안을 키가 작은 사람이 지나가면 긴 침대에 끌고가 몸을 침대길에 만큼 늘여주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끌고가 침대밖으로 나온 발을 잘라 죽이곤 했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로부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권으로 내리먹이는 행위, 전혀 맞지 않는 기준과

요구를 우격다짐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횡포한 행위를 비유하는 말로 통하고 있다.

미국이 노는 꼴은 프로크루스테스의 행위를 통가하고 있다.

위성발사도 핵시험도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한 평화적위성발사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인 지하핵시험을 결코 《불법》이요, 《평화에 대한 위협》이요 하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고 포악무도한 횡포이다.

근 70년전에 벌써 미국은 대대로 한강도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와 강도를 두동강내었다.

분열된 이 땅에서 겨레가 당한 고통과 흘린 피눈물은 그 얼마였던가.

나라의 절반땅을 도둑내기도 성차지 않아 우리 공화국까지 먹어보겠다고 또다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미제와 마지막결판을 보고야말리라는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열적의 기상이 교정에 팍 차넘치고 있다.

최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대그리스신화의 쇠질대도적같은 악당들을 잡아죽여야 하는것처럼 우리 겨레가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고 세계가 평온해지려면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미국을 호되게 징벌해야 한다.

김영직사범대학 어문학부 교수, 박사 허수산

500만의 총포탄이 되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해하려고 횡포한 경제《제재》수위를 넘겨 침략적인 군사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포악무도한 원수들에게 대한 치욕은 적개심과 보복의 일념으로 세차게 끓고 있다.

적대세력과의 판거리 전면대결전이 벌어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어디겠는가. 그것은 조국수호의 자리이고 원수격멸의 화선이다.

이 손으로 악의 제국, 침략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안아오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면대결전에 나섰다.

미국놈들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고 고난과 시련도 헤쳐야 했는가.

이 나라의 허리를 가로질러놓고 6.25의 재난을 몰아온 미국, 근 70년세월이나

500만의 총포탄이 되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해하려고 횡포한 경제《제재》수위를 넘겨 침략적인 군사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포악무도한 원수들에게 대한 치욕은 적개심과 보복의 일념으로 세차게 끓고 있다.

적대세력과의 판거리 전면대결전이 벌어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어디겠는가. 그것은 조국수호의 자리이고 원수격멸의 화선이다.

이 손으로 악의 제국, 침략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안아오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면대결전에 나섰다.

미국놈들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고 고난과 시련도 헤쳐야 했는가.

이 나라의 허리를 가로질러놓고 6.25의 재난을 몰아온 미국, 근 70년세월이나

### 자주와 존엄을 위해 이 손에 총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접한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심한 우리 조국강도를 짓궂고 달려드는 침략의 무리들을 단호히 옹호하고 고지, 1211고지를 끝까지 지켜싸우던 정신과 기개가 우리 로병들의 가슴가슴에 팍 차있다. 결전의 이 시각 우리 전쟁로병들도 아들, 손자들과 함께 전호에 다시 서서 침략자들의 머리우에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정내고 최후의 승리를 하루 빨리 앞당겨줄 결사의 각오와 보복의 일념으로 불타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 배경으로 볼때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며 온갖 적대세력들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가장 로폭적인 군사적대발행위이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험악한 사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자위권침해행위가 횡포한 경제《제재》수위를 넘어 침략적인 군사공세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이 최대로 위협받고있는 이 시각 대학생들이라고 하여 우리가 가만히 교정에 앉아 공부만 하고있을수는 없다. 조국이 없으면 나와 우리 가정도 없고 정다운 대

학교정도 없다. 우리모두의 삶이고 생명인 자주와 존엄을 위해 우리도 이 손에 총을 잡겠다.

제대군인출신인 나는 보람찬 병사시절 총대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절감했고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이 한몸 사슴없이 바치리라 굳게 마음다지곤 했다. 비록 군복은 벗어도 조국수호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나뿐 아니라 우리 학급 모든 동무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상대가 영웅조선이고 저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김책공업총합대학 학생 최성진

###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보복의 불벼락을

중당에는 패배의 회기를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이 땅의 군인들과 인민들이 애국의 더운 피로 강산을 물들이며 조국을 수호하고 전승의 위대한 추포를 안아올렸다.

지금도 17살의 청춘의 몸

그때 미국놈들은 원자탄으로 우리 인민을 위협공갈하며 군사기술적우세로 전쟁을 속결하려 하였지만 그때마다 화결과 패전을 면치 못하고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약하며 벌리고있는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내의 온 겨레는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행동을 반대규탄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얼마전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와 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계층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북침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자들은 《평화를 이루

지 못하면 전쟁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핵전쟁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침을 목표로 한 전면대비전습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일촉즉발의 군사적위기가 조성된 현실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적인 불장난은 군사적충돌가능성만 크게 할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단체들은 매우 목요일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동시다발 1천인인시위》를 벌릴것을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진생평화통일주권련대도 성명을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전쟁의 도화선으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성명에서 지금이야말로 《선제공격》을 운운하

며 해마다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으로 북을 위협하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반침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때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전쟁반대투쟁은 광주, 전주, 울산 등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호전광들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것은 북침전쟁발장난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

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2의 연평도사건이 일어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경고하였다.

전라남도 진보련대도 모임을 열고 《(제재)와 압박, 군사적긴장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의 무조건중지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이밖에도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정당, 단체인들은 공동집회를 통해 북침합동군사연습의 개시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위기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평화정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해외동포들도 글들을 통해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단죄규탄하였다.

제도이철란 드문드문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코리아뉴스》에 글을 실고 내외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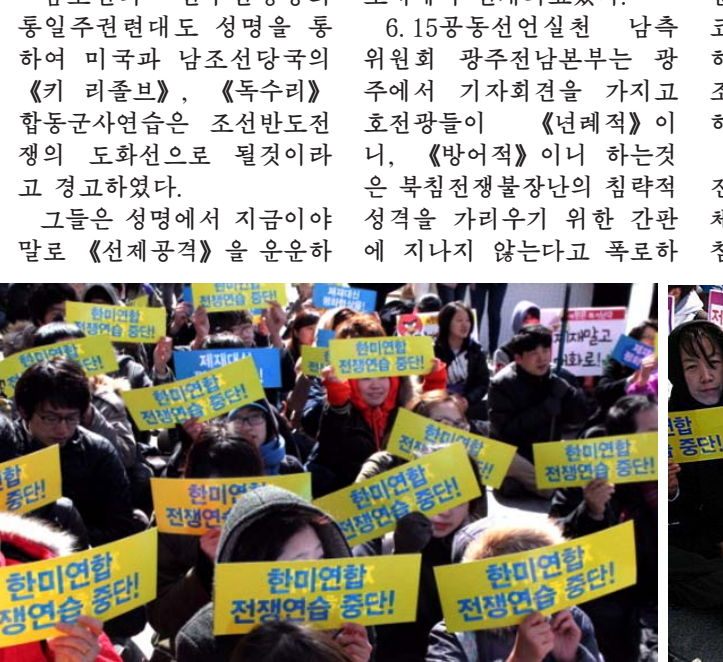
광들의 끊임없는 군사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그 어느때보다 핵전쟁위험이 커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남조선의 현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걸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라는것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쟁밖에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가 밋은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위협이 짙게 떠돌고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 사명을 지닌 유엔이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동요한것은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류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가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법적으로 《유엔군》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유엔헌장 제43조에는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병력제공국가사이의 협정으로 조직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미국과 15개 추종

유엔관할하의 기구의 제정은 유엔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엔은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의 제정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에 있어서나 군사체제상 견지에 서나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

반도 《유사시》 추종국가 군대의 작전지휘 및 병참 임무도 수행할수 있는 전투사령부와 같은 기구로 되살려 저들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적극 써먹으려 하고 있다.

2006년 남조선과 《전시작전통제전환》 협상을 진행한 이후부터 《유엔군사

가시켜 《유엔군사령부》 주도의 합동군사체제를 되살리고있다. 지금 광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도 미국이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여러 추종국가무력을 또다시 끌어들이었다.

실제적조작도 없고 유명무실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 《유엔군사령부》를 전시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연합기구》로 되살리려 하는것은 조미사이의 교전관계를 계속 《유엔과 조선과의 교전관계》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성체공격으로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엔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개입되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책들을 로골화하면서 유엔결의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어야 할 《유엔군사령부》를 오히려 확대편성하려는것은 유엔의 신성한 사명과 인류의 향상에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군사장패, 인간오작품 — 김관진, 정승조

지금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추종하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재난을 들이우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나 날뛰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앞장에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합동참모본부의 장 정승조가 서있다. 이 천하의 불망나니들은 전연에 위치한 군단들과 합대사령부, 유도탄부대들을 싸다나며 공화국의 그 무슨 《군사적도발》이 예견된다고 선동하면서 《도발원점》에 대한 《처절한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뉘나 하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침략적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시작을 전후로 하여 더욱 무분별하게 날뛰는 김관진이나 정승조의 망동은 겨레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이자들로 말하면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리명박역도의 턱밑에 붙어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면서 민족앞에 천후에 씻을수 없는 엄청난

난 죄악을 저지른 군사장패들이다.

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 앉자마자 《도발원점은 물론 지형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는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면서 미국과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전쟁도발소동에 미쳐돌아가다 못해 엄중하게는 남조선군훈련장 도처에 감히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체를 헐뜯는 표적을 만들어놓고 총탄을 쏟아내게 한자가 다름아닌 김관진이다. 그런가하면 민족의 대국상시 남조선괴뢰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F-15》 전투기까지 비상출격태세를 갖추게 하였고 《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것》이라는 폭언을 늘어놓으며 특대행방인륜적범죄를 저지른 자가 정승조이다.

만고역적 리명박의 손발이 되어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망

쳐놓은 이런 역적무리들이 미국상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변나라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온 겨레는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르고 헤덤비며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해 발광하고있는 것은 참으로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 《정경》의 종말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인간오작품들이 아직도 살아서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저들이 지금껏 저지른 반민족적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후임자들도 그 죄악의 전철을 밟게 하려는 교묘한 속심의 발로이다.

부인하건대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제일먼저 저승에 갈것은 불을 즐기는 김관진, 정승조파위들이다.

미국의 삽살개가 되어 북침성체공격을 부르짖는 전쟁미치광이들을 그냥 놔두면 남조선인민들이 당할것은 전쟁의 재난밖에 없다.

본사기자 서희

##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수행도구

사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이 유엔헌장과 규정에 배치되게 조작한것이다.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소련대표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었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절차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들의 허락요구를 요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소련대표의 회의불참가를 허락요구로 해석할수 없고 여기에서 토의된 그 어떤 결정도 국제법적효력을

국가들은 유엔헌장 제43조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쟁에 파견하였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의 기구라면 그 사령관은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력대적으로 미국정부가 미국인들로 임명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라면 마땅히 그 산하에 유엔성원국들의 무력이 속해있어야 한다. 그러나 1958년 이래 《유엔군사령부》에는 미국 외에 그 어떤 다른 유엔성원국의 무력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등에서 철저히 비법적인것이 유엔헌장에 대한 란족한 위반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현실은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라는 유령이 존재 명분을 잃은지 오래며 그의 종국적인 해체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조선

령부》를 전시작전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군사기구로 되살리려고 책동한 미국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추종국가군사대표들을 처음 참가시킨데 이어 2010년 10월에 진행된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추종국가들의 무력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이라는것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진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등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에 추종국가군대들을 정례적으로 참

## 독수리는 왜 하늘을 나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주도하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간판을 달았지만 진짜 연습의 성격은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소동이고 온갖 적대세력들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가장 로골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다.

독수리는 항상 공격적이고 살륙적인 맹금이다. 항상 무엇을 노리는듯 매섭게 치는 눈, 사나운 부리, 우악스러운 발톱.

이러한 독수리가 다른 날 새나 짐승들을 해치면 해치지 않을 때를 노리는것을 본적이 있는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것은 제 배를 채울 먹이감을 사냥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미국주도하에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침략전쟁행습의 명칭도 신동히 《독수리》이다.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지금 공화국을 덮치려 하고있다.

사나운 부리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발톱에는 핵폭탄을 거머쥐고서.

그러나 《독수리》의 침략과 살육이 다른 지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조선의 하늘이고 땅이다.

감히 퍼문은 그 부리로 쪼 으러 하고 더러운 핵발톱으로 활켜려 한다던 신군의 드센 포화에 얻어맞아 만신창이 되고말것이다.

김정혁



# 불행과 고통, 남조선전쟁과 강점재난의 면면을

지난 2일 남조선의 서울 한복판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이날 미제침략군병사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공기총으로 마구 쏘아대며 관동을 부리다가 건너에 나선 남조선경찰을 승용차로 깔아뭉개며 황급히 도망쳤다. 그런가하면 서울 시내를 미친듯이 질주하면서 주차장에 세워둔 여러대의 차량과 2명의 주민을 들이치는 남강도행위를 감행하였다.

극도에 이른 강점군의 오만무례한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이 아니라 오직 저들의 침략적, 란족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헌법에 틀고앉아있는 침략군이 강점군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수십년째 남조선인민들을 《보호》한것이 아니라 인권을 짓밟고 무참히 살륙하여왔다.

군산소년총격사건과 부령소년직속기뢰작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동두천녀인사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장갑차로 지나가던 두 녀학생을 야수적으로 깔

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해 감행된 살인만행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난해 7월에도 총무장한 미군병사들은 적수공린의 남조선주민들에게 달려들어 나쁜 폭행을 가하던 끝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끌어감으로써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들쥐》로, 지배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강점군의 오만한 사고방식과 횡포성이 빚어낸 반민륜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없어지지 않고있는데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도 한몫 하고있다.

이 《협정》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누구도 마구 다칠수 없는 치외법권적존재로 되어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이 《야외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제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했지만 오히려 미군범죄건수는 344건으로서 리명박역도전

5년사이엔 22%나 늘어났다.

강점자의 잔인성과 횡포성, 야수성을 더욱 부추기는 《행정협정》이야말로 식민지어속문서이다.

더우기 심각한 문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온 민족의 운명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과 대결광풍에 사로잡힌 미호전진행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대결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질은 화약배가 가는지지 않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다. 운군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된 이 전쟁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

현실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강점하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민족이 불행과 고통, 전쟁과 재난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있다.

김철호

## 미군의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분노한다

남조선인민들이 4일과 5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야수들의 치명리는 만행을 규탄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주장하는 글들을 실었다.

《한겨레》는 남조선강점 미군들이 길가던 주민들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자동차로 깔아뭉개며 달아나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도 못하고 미군측의 협조만을 기다리고있다고 신문은 비난하였다.

신문은 남조선에서 미군범죄가 한해에 수백건씩 감행되고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당히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총기까지 휘두르며 감행된 미군범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없어지지 않고있는데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도 한몫 하고있다.

이 《협정》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누구도 마구 다칠수 없는 치외법권적존재로 되어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이 《야외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제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했지만 오히려 미군범죄건수는 344건으로서 리명박역도전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없어지지 않고있는데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도 한몫 하고있다.

이 《협정》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누구도 마구 다칠수 없는 치외법권적존재로 되어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이 《야외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제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했지만 오히려 미군범죄건수는 344건으로서 리명박역도전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없어지지 않고있는데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도 한몫 하고있다.

이 《협정》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누구도 마구 다칠수 없는 치외법권적존재로 되어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이 《야외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제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했지만 오히려 미군범죄건수는 344건으로서 리명박역도전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없어지지 않고있는데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도 한몫 하고있다.

이 《협정》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누구도 마구 다칠수 없는 치외법권적존재로 되어 《제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이 《야외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제를 강화한다.》 하며 부산을 피했지만 오히려 미군범죄건수는 344건으로서 리명박역도전

본사기자



범죄행위를 저지른 남조선강점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미군강점은 재난의 화근

외세가 강점한 곳에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이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당하며 고통을 받기마련이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의 총기탄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2일 남조선강점 미군병사들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남조선주민들에게 공기총을 마구 쏘아대며 관동을 부리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단속하는 남조선경찰을 승용차로 깔아뭉개고 여러대의 차량과 2명의 주민을 들이치는 흉악한짓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황포한 미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이루다 말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강도, 강간, 살인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산에서 나무를 뜯는 소녀를 《뺨》이라고 쏘아죽이고 철도 들지 않은 어린 소녀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룡간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여 내던지고 백주에 남의 집에 뛰어들어 돈을 훔치고 집주인들도 살해한 미군의 만행들을 일일이 꼽자면 끝이 없다.

2002년에도 미군은 북침전쟁연습을 위해 돌아치던 과정에서 길가던 나더런 두 녀학생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는 치명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이 만행은 온 남조선인민들의 분격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포 무도한 미군은 형식적인 재판놀음을 벌여놓고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들을 미국으로 빼돌려 온 남조선이 반미의 초콜바다가 되게 했다.

지난해에는 미군에 의한 동두천녀학생총격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도적고양이마냥 동두천 미군기지주변의 어느 한 려관의 녀성침실에 뛰어들어 미군범죄자는 10대의 녀학생을 바늘로 꿰뚫어놓고 칼과 가위로 위협하며 무려 4시간동안이나 성폭행하였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원주목과 파이라 등 10대 녀학생의 신체에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짐승도 낮을 풀릴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지파전동차안에서 20대의 남조선녀성을 성희롱한 사건,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남조선주민들을 죄인취급하며 무지막한 폭언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100여발의 핵탄을 적제한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력추진단들이 대량 투입되고 남조선군과 여러 추종국가 무력까지 동원되는 이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언제까지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강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초래될것은 불행과 고통, 전쟁과 재난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범죄집단을 없애고 미군을 없애고 리명박을 없애고》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오로지 범죄집단을 제거하는것만이 우리 국민이 마음편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하면서 갖은 범죄를 일상사로 저지르는 미군을 내몰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리고있다.

강도가 자기 집안에 틀고있으면 집주인들이 화를 입을수밖에 없다.

본사기자 명금룡